

해 외 직 접 투 자 동 향 분 석

(2011년 1/4분기)

2011. 5.

해 외 경 제 연 구 소 해 외 투 자 분 석 반

목 차

요약	Ⅱ
Ⅰ. 개 요	1
Ⅱ. 지역별 동향	2
Ⅲ. 업종별 동향	6
Ⅳ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8
Ⅴ. 기 타	9

< 요약 >

□ 2011. 1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82.9% 증가한 59.1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유럽 및 대양주, 업종별로는 광업 및 도소매업 중심의 투자 증가가 전체 투자 증가를 견인

【지역별】

□ 전년동기 대비 유럽, 대양주에 대한 투자 대폭 증가

- 유럽 및 대양주에 대한 투자가 광업을 중심으로 각각 230.5%, 448.8%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 증가
- ※ 북미(18.7억달러), 아시아(15.7억달러), 유럽(14.5억달러), 대양주(5.4억달러)

【업종별】

□ 광업 투자 증가세 지속 및 도소매업 투자 증가세 전환

- 광업 투자는 237.5% 증가세를 시현하며 그 비중을 44.8%로 확대
- 도소매업 투자는 지난 2년간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금분기중에는 국내 대기업의 미국 판매현지법인 대규모 투자1건에 힘입어 대폭 증가세로 전환
- ※ 광업(26.5억달러), 제조업(12.8억달러), 도소매업(8.8억달러), 금융보험업(3.7억달러)

【투자기업규모별/ 투자규모별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확대 지속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광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.1% 증가하여 그 비중을 85%로 확대

□ 1억 달러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 수준 유지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52.8%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(19.7%)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전년(54.0%) 대비 비슷한 수준 유지

I. 개 요

- 2011. 1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82.9% 증가한 59.1억 달러를, 신규법인수는 0.9% 증가한 678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유럽 및 대양주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0.5%, 448.8% 증가하여 현저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며, 업종별로는 광업 및 도소매업의 증가세가 각각 237.5%, 340.0%로 두드러졌음.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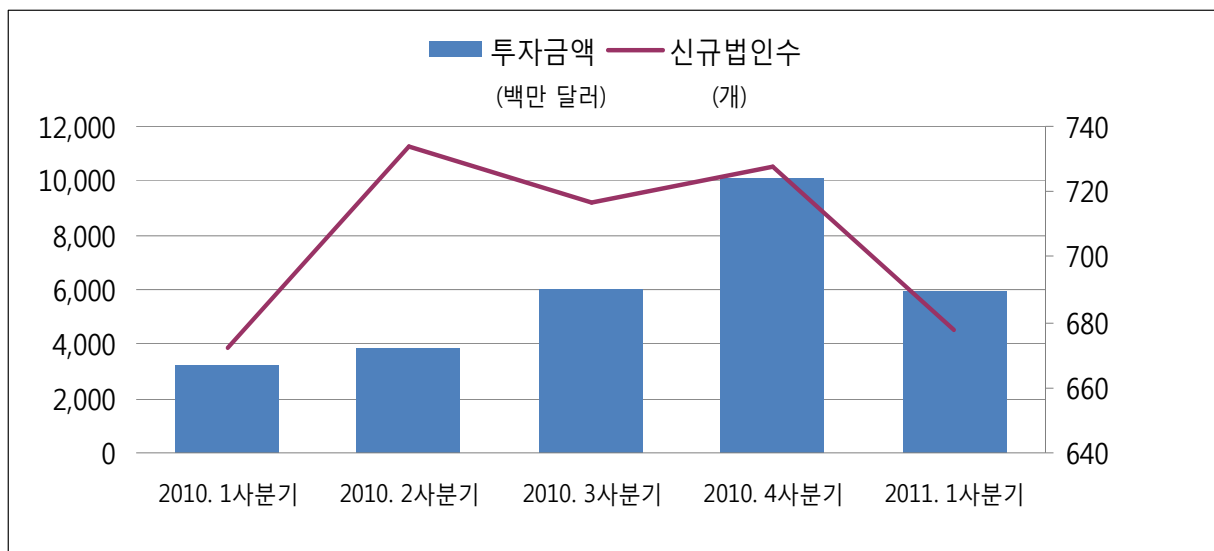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1/4		2011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 (증감율)	23,845 7.3%	4,025 -29.3%	20,094 -15.7%	2,479 -38.4%	23,175 15.3%	2,851 15.0%	3,232 1.2%	672 36.9%	5,910 82.9%	678 0.9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북미(31.6%), 아시아(26.5%), 유럽(24.5%) 순이며, 업종별 광업(44.8%), 제조업(21.7%), 도소매업(14.8%) 순임.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※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
미국(11.7), 영국(7.3), 캐나다(7.0), 네덜란드(5.7), 호주(5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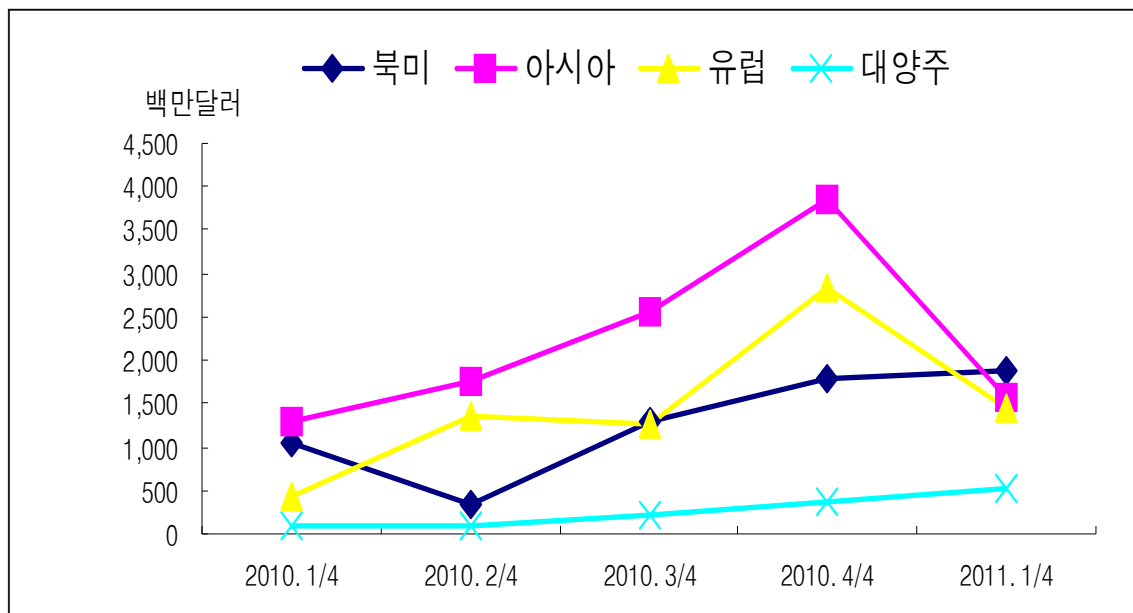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유럽 및 대양주에 대한 투자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0.5%, 448.8%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 시현
- 국가별로 유럽 내에서는 영국(7.3억 달러) 및 네덜란드(5.7억 달러), 대양주는 호주(5.2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유럽은 광업(10.5억 달러) 및 금융·보험업(1.6억 달러), 대양주는 광업(4.7억 달러) 및 건설업(0.3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북미 31.6%, 아시아 26.5%, 유럽 24.5% 순이며,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82.6% 차지
- 2010년의 경우 북미, 아시아,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19.4%, 40.8%, 25.4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5.6% 차지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1/4		2011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북미	5,297	808	5,998	534	4,501	547	1,063	134	1,865	120
(비중)	22.2%	20.1%	29.9%	21.5%	19.4%	19.2%	32.9%	19.9%	31.6%	17.7%
(증가율)	40.9%	-38.7%	13.2%	-33.9%	-25.0%	2.4%	-10.3%	41.1%	75.5%	-10.4%
아시아	11,677	2,747	6,638	1,582	9,458	1,913	1,297	451	1,567	446
(비중)	49.0%	68.2%	33.0%	63.8%	40.8%	67.1%	40.1%	67.1%	26.5%	65.8%
(증가율)	0.8%	-27.5%	-43.2%	-42.4%	42.5%	20.9%	22.7%	41.4%	20.8%	-1.1%
유럽	3,390	196	5,145	130	5,883	152	437	38	1,445	39
(비중)	14.2%	4.9%	25.6%	5.2%	25.4%	5.3%	13.5%	5.7%	24.5%	5.8%
(증가율)	-23.5%	-22.8%	51.8%	-33.7%	14.3%	16.9%	-29.0%	46.2%	230.5%	2.6%
대양주	771	101	538	60	772	69	98	9	539	21
(비중)	3.2%	2.5%	2.7%	2.4%	3.3%	2.4%	3.0%	1.3%	9.1%	3.1%
(증가율)	42.0%	-10.6%	-30.2%	-40.6%	43.4%	15.0%	68.8%	-25.0%	448.8%	133.3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75.5% 증가한 18.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10.4% 감소한 120개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11.7억달러), 캐나다(7.0억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광업(8.4억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7.5억달러), 제조업(1.3억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0.4억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이 44.8% 차지
 - 북미 투자액 중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27.1%, '09년 50.3%, '10년 27.5%
 - 북미 도소매업 투자비중 : '08년 27.2%, '09년 14.0%, '10년 7.1%, '11. 1/4분기 40.1%

나. 아시아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15.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0.8% 증가하였으나 전체 증가율 82.9%에 비하면 크지 않은 수준인 한편, 신규법인수는 1.1% 감소한 446개를 기록

- 국가별로는 중국(5.0억달러), 베트남(2.1억달러), 인도네시아(1.9억달러), 일본(1.3억달러), 싱가포르(1.1억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국 투자비중이 32.2% 차지
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8년 32.0%, '09년 32.0%, '10년 33.5%
- 업종별로는 제조업(8.5억달러), 광업(1.5억달러), 도소매업(1.1억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1억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제조업 투자비중이 54.0% 차지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36%, '09년 41.1%, '10년 51.5%

다. 유럽

- 유럽의 금분기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30.5%, 2.6% 증가한 14.5억 달러, 39개를 기록하는 등 투자금액이 큰 폭 증가
- 주요 요인 : 에너지 공공기관의 광업 투자 대폭 증가
- 국가별로는 영국(7.3억 달러), 네덜란드(5.7억 달러), 불가리아(0.4억달러), 노르웨이(0.3억달러), 러시아(0.2억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광업(10.5억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1.6억달러), 제조업(0.9억달러), 건설업(0.5억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·수도사업(0.4억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은 72.7%에 이릅니다.
- 유럽지역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8.3%, '09년 14.9%, '10년 55.7%

라. 대양주

- 금분기 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448.8%, 133.3% 증가하여 5.4억 달러, 신규법인수 21개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졌음.
- 국가별로는 호주(5.2억달러), 괌(0.2억달러) 순으로 업종별로는 광업(4.7억달러), 건설업(0.3억달러) 순으로 투자

마. 기타

- 전년동기 대비 중남미는 95.8%, 아프리카는 35.9% 투자액이 증가한 반면 중동은 20.8% 감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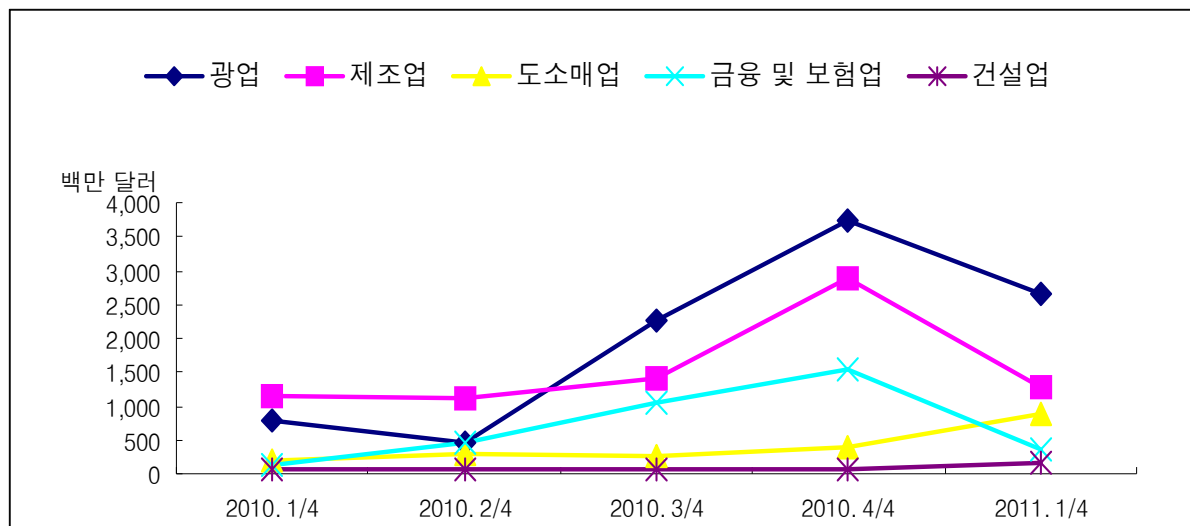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업종별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광업 및 도소매업이 각각 237.5%, 340.0% 증가하여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 가운데, 제조업 11.1%, 금융·보험업 189.1%, 건설업이 115.6% 증가한 반면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은 57.6% 감소
- 광업의 경우 국가별로 캐나다(6.7억달러), 네덜란드(5.3억달러), 영국(5.1억달러), 호주(4.7억달러) 위주로, 도소매업은 미국(7.5억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그림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업종별 투자비중은 광업 44.8%, 제조업 21.7%, 도소매업 14.8%, 금융·보험업 6.2% 순을 기록하여 광업의 투자비중이 더욱 확대

·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17.3%, '09년 27.2%, '10년 31.5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1/4		2011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광업	4,104	108	5,430	66	7,225	52	784	12	2,645	13
(비중)	17.3%	2.7%	27.2%	2.7%	31.5%	1.8%	24.2%	1.8%	44.8%	1.9%
(증감율)	100.1%	50.0%	32.3%	-38.9%	33.1%	-21.2%	-17.2%	-25.0%	237.5%	8.3%
제조업	7,190	1,399	4,571	850	6,557	1,120	1,155	259	1,284	282
(비중)	30.4%	35.0%	22.9%	34.7%	28.6%	39.5%	35.7%	38.5%	21.7%	41.6%
(증감율)	-11.9%	-37.8%	-36.4%	-39.2%	43.5%	31.8%	36.3%	57.0%	11.1%	8.9%
도매 및 소매업	3,730	789	1,810	527	1,148	658	199	160	875	156
(비중)	15.8%	19.7%	9.1%	21.5%	5.0%	23.2%	6.2%	23.8%	14.8%	23.2%
(증감율)	48.5%	-21.8%	-51.5%	-33.2%	-36.6%	24.9%	-65.7%	41.6%	340.0%	-2.5%
금융 및 보험업	2,158	81	1,772	45	3,197	62	127	15	366	16
(비중)	9.1%	2.0%	8.9%	1.8%	13.9%	2.2%	3.9%	2.2%	6.2%	2.4%
(증감율)	28.0%	5.2%	-17.9%	-44.4%	80.3%	34.8%	123.1%	87.5%	189.1%	6.7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는 26.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37.5% 증가하였고, 신규법인수는 13개로 8.3% 증가
 - 에너지 공공기관 투자금액 증가가 광업 투자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
 -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의 광업 투자금액 : 24.7억 달러
- 국가별로는 캐나다(6.7억달러), 네덜란드(5.3억달러), 영국(5.1억달러), 호주(4.7억달러), 미국(1.7억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유럽 및 북미 지역 투자 비중이 각각 39.7%, 31.6%로 상당부분 차지
 - 유럽 지역 투자비중 : '08년 6.9%, '09년 14.1%, '10년 45.4%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8년 35.0%, '09년 55.5%, '10년 17.8%
- 투자금액 비중은 44.8%로 전체 업종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신규법인수 비중은 1.9%로 미미한 바 법인당 투자규모는 매우 큰 편임.
- 세부 업종별로는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24.8억달러) 투자비중이 93.7%로 절대적임.

3. 제조업

- 금분기 제조업 투자는 12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.1% 증가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282개로 8.9% 증가

- 국가별로는 중국(4.1억달러), 인도네시아(1.4억달러), 브라질(1.2억달러), 미국(1.2억달러), 베트남(1.2억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액은 8.5억 달러로 66.0% 비중 차지
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지역 투자비중 : '08년 58.4%, '09년 59.7%, '10년 74.2%
- 신규법인수 비중(42.0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21.7%)이 상대적으로 작은 바, 법인당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것으로 보임.
- 세부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2억달러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억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2억달러) 순으로 투자

4. 도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8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0.0% 증가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156개로 전년동기 대비 2.5% 감소
- 국내 대기업을 미국 판매현지법인 투자 1건에 힘입어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며 투자액 큰 폭 증가
- 국가별로는 미국(7.5억달러), 중국(0.4억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북미 투자 비중이 85.6%로 절대적임.

5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7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9.1% 증가하였으며, 신규법인수는 16개로 전년동기 대비 6.7% 증가함.
- 지역별로는 유럽(1.6억달러), 중남미(0.9억달러), 아시아(0.6억달러) 순으로 투자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업을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123.1% 증가하여 그 비중이 85%로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은 6.7% 감소하여 그 비중 축소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08		2009		2010		2010. 1/4		2011. 1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6,584	360	16,132	256	18,704	352	2,251	74	5,023	67
(비중)	70.6%	9.1%	81.5%	10.6%	83.0%	12.7%	69.7%	2.7%	85.0%	9.9%
(증가율)	11.3%	-9.8%	-3.6%	-32.6%	14.5%	27.1%	-9.8%	39.6%	123.1%	-13.0%
중소기업	5,911	1,813	3,331	1,160	3,419	1,313	862	323	804	338
(비중)	25.2%	46.0%	16.8%	48.2%	15.2%	47.5%	26.7%	48.1%	13.6%	59.9%
(증가율)	-1.4%	-19.7%	-45.5%	-37.2%	0.1%	11.7%	35.7%	35.7%	-6.7%	4.6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85%인 반면, 신규법인수 비중은 9.9%에 그치고 있는 바, 대기업의 투자건별 투자금액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규모인 것으로 보임.

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광업(26.1억달러), 도소매업(7.9억달러), 제조업(7.8억달러), 금융·보험업(3.4억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대기업의 광업 투자비중은 51.9% 차지
- 대기업의 광업 투자비중 : '08년 23.3%, '09년 32.1%, '10년 36.9%
- 지역별로는 북미(16.7억달러), 유럽(13.9억달러), 아시아(10.3억달러) 순으로 투자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4.6억달러), 도소매업(0.7억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은 57.6% 차지
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8년 38.4%, '09년 43.5%, '10년 52.3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4.8억달러), 북미(1.7억달러), 유럽(0.5억달러) 순으로 투자

V. 기 타

□ 투자규모별

<표 5>

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1/4		2011. 1/4	
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
50만달러 이하	815	3.4%	545	2.7%	585	2.5%	204	6.3%	203	3.4%
~200만달러 이하	1,364	5.7%	934	4.6%	1,044	4.5%	340	10.5%	317	5.4%
~500만달러 이하	1,790	7.5%	1,308	6.5%	1,386	6.0%	424	13.1%	395	6.7%
~1000만달러 이하	1,699	7.1%	1,125	5.6%	1,311	5.7%	298	9.2%	336	5.7%
~5000만달러 이하	5,297	22.2%	4,068	20.2%	4,081	17.6%	955	29.5%	1,164	19.7%
1억달러 이하	3,002	12.6%	2,629	13.1%	2,249	9.7%	374	11.6%	372	6.3%
1억달러 초과	9,878	41.4%	9,485	47.2%	12,520	54.0%	637	19.7%	3,123	52.8%

- 건당 투자규모가 1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의 비중이 전년동기 60.8%에서 금분기 78.8%로 증가하였으며, 1억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의 비중도 19.7%에서 52.8%로 증가하는 등 투자규모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음.

□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6.4%에서 금분기 81.5%로 증가

<표 6>

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)

구 분	2008		2009		2010		2010. 1/4		2011. 1/4	
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
10% 미만	736	3.1%	436	2.2%	302	1.3%	65	2.0%	31	0.5%
~ 50% 미만	3,188	13.4%	1,575	7.8%	2,855	12.3%	301	9.3%	445	7.5%
50%	358	1.5%	657	3.3%	171	0.7%	28	0.9%	270	4.6%
~ 100% 미만	2,088	8.8%	1,605	8.0%	3,060	13.2%	355	11.0%	346	5.9%
100%	17,475	73.3%	15,821	78.7%	16,787	72.4%	2,483	76.8%	4,817	81.5%